

시도 때도 없는 멧돼지 출몰 '공포 확산'

광주서 차 들이받고 총 맞고도 돌진...진압 경찰관 물려 부상 순천선 로드킬 멧돼지 발견...돼지열병 검사도 없이 매몰 처리 번식기 앞두고 도심 출몰 잇따라 지역민 인명사고 우려 '불안'

지난 25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서광주역 앞 사거리에 야생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야생멧돼지는 도로를 배회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까지 진입했다. 몸무게 100kg의 암컷 야생멧돼지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충돌하기도 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탄 10여 발을 발포해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물려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계자는 "중형급 크기에 불과한 멧돼지였지만 실탄 2발을 맞고도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며 "대형 멧돼지가 도심에 등장한다면 제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 5시 50분께엔 순천시 서면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야생멧돼지 한마리가 '로드킬'을 당해 죽은 채 발견됐다.

특히 이 멧돼지는 '로드킬 당한 개체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도 하지 않은 채 매몰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긴다고 하는데, 죽은 멧돼지를 검사도 않고 그냥 파 묻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행정기관의 대처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16마리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도심 곳곳에서 야생멧돼지가 출몰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몸무게가 최대 280kg에 육박하는 야생멧돼지가 시민들을 공격하거나 도로에 뛰어든 경우엔 인명사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일정 수까지 줄이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광주 도심가에 출몰한 야생멧돼지는 2017년 25마리, 2018년 15마리, 올해 9월까지 12마리 등 52마리에 이른다. 멧돼지들은 아파트 주차장과 초등학교 주변 등을 배회하기도 했다. 타 지역이긴 하지만, 부산 동래구에서는 지난 28일 새벽 4시 30분께 주택가에 야생멧돼지 6마리가 나타나 4마리가 사살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야생멧돼지들이 번식기인 11월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고 있다"며

서 "특히 따뜻해진 기후와 낮은 적설량으로 야생멧돼지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반면 개발행위가 잇따르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멧돼지들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 야생동물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km당 4.9마리씩 총 3만 3000여 마리의 야생멧돼지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1만 5000여 마리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사살이나 포획뿐이다.

이법기 광주전남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국장은 "야생멧돼지가 주로 산 등지에 서식하지만 민가와 경계가 없어 먹이를 찾아 출몰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포획 및 사살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 관련 검찰, 광주시 국장급 간부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후 특정검사를 거쳐 업체 간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간부 공무원 A씨가 평소 막대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던 민간공원 사업 관련 특정업체 대표와 사업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통화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종재 행정부시장과 운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 실무 공무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해 유의미한 일부 혐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단계 사업지구 5곳 중 한 곳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 1순위였던 금호산업이 과실이 없는데도 특정 감사에서 심사 오류가 발생했다며 재공모 없이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과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경우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고속도로서 3중 추돌 1명 사망·3명 부상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곡성군 검면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상행선 2차로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일 뒤에서 추돌한 1t트럭 운전자 A(6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제일 앞 화물차에 타고 있던 B(42)씨와 세살배기 여아, 가운데 SUV 운전자(43)씨 등 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트럭이 앞서 달리던 SUV를 들이받은 뒤 잇단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미세먼지 예방 '쿨링로드' 시험 가동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중앙상에 설치한 '쿨링로드'가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봄가을엔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여름 폭염엔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세버스가 트랙터 추돌 해남서 40대 중상

29일 오전 8시 4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도로에서 전세버스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A(41)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세버스 승객 20여명 가운데 5명도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세버스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임 총장 임명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반발 조선대 구성원들, 광주고법 앞서 무기한 1인 시위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가 최근 법원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반발, 지난 28일부터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강 전 총장 재임기간 동안

의혹이 일었던 '2017년 장미축제 바자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조선대 직원 노조와 조선대 민주동우회 관계자는 29일 "2심 재판부가 강 전 총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측의 변론만을 듣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선대 법

인측에는 변론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23일 광주고법 민사 2부(고법판사 유현중)는 강 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달리 "교육부 소청심사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신임 총장 임명 절차를 중지하라"며 사실상 강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 대명사' 한빛 1호기 정기검사 다시 진행

원안위, 남은 9개 항목 조사

'부실시공의 대명사'가 된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다시 진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한빛 1호기 정기검사에서 남은 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총 8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마친 한빛 1호기는

올해 5월 9일 원안위에서 재가동 승인을 받고 남은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던 중 하루 만인 5월 10일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가동을 정지했다.

이후 원안위는 이 사고가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친구가 바다에 빠졌어요"...경찰관이 30m 헤엄쳐 구조

목포에서 경찰이 30여m를 헤엄쳐 도심 앞바다에 빠진 20대를 구조했다.

29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께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바다에 A(28)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B(29)순경은 광장 한켠에서 친구를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A씨의 친구를 발견했다.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자 A씨가 물에 빠져 있었다. B순경은 순찰차 안

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환을 챙겨 30m정도를 헤엄친 끝에 A씨를 구조했다.

친구도 뒤늦게 구명환을 들고 헤엄쳐 A씨의 구조를 도왔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왜 병든 개 팔았냐"...이웃 뺨 때리고 어깨 깨문 주부 경찰서행

○... "왜 병든 개를 팔았냐"며 이웃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깨문 50대 가정주부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2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여·54)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공원에서 이웃인 B(여·59)씨를 만나 자신에게 판매

한 개가 병들었다며 소리를 지르다 화를 참지 못해 양손으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어깨를 깨물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주일 전 B씨에게서 3만 원에 구매된 개가 지금 다 죽어간다"며 "B씨가 병든 개를 팔아 놓고 나몰라라 한다"고 진술.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